

함께 함께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롬 12:15

380

2017. 6. 25

2017년 주님의교회 표어

다시 거룩한 교회로!
(레 19:2, 롬 1:17)

오늘의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
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매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
이 쉬을 얻으리니

마태복음 11:28-29

오늘의 주요기사

- 2 종교개혁 이야기, 더 바이블
- 3 창립 29주년 특집
- 4 박원호 목사 총장 취임식
- 5 케냐 기독교교육선교센터
- 6 사역팀 소식
- 7 목회칼럼
- 8 아가나들이

교회 일정

6/25(주일)	창립기념주일(29주년)
7/2(주일)	성찬주일
7/4(화)	늘푸른대학 종강

발행인 : 김성식
편집인 : 강진식
발행처 : 주님의교회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4길 16 정신여고 내
02)416-5181~2
편 집 : 함즐함울팀

주님의교회



주님의교회 제4대 박원호 담임목사가 정관에 따른 임기를 마치고 18일 퇴임식을 가졌다. 전교인이 박수로 축하하는 가운데, 박대길 서기장로가 감사를 증정했다.

제4대 박원호 담임목사 퇴임식

정관에 따라 임기 마친 첫 번째 담임목사로 뜻 깊은 퇴임식
19일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총장 취임, 하나님의 사역 계속

지난 2007년 6월 17일 부임, 10월 28일에 제4대 담임목사로 위임을 받아 10년 동안 주님의교회를 섬겨온 박원호 담임목사가 6월 18일 퇴임예배를 끝으로 임기를 마쳤다. 이날 퇴임예배는 지난 10년을 돌이켜보는 동영상 상영으로 시작되어, 송시낭송, 감사패 증정, 샬롬찬양대 혼성4중창과 주오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이어졌다. 3부 예배에서는 박원호 담임목사와 사모, 두 아들과 손녀까지 온 가족이 나와 교인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올리기도 했다.

박원호 담임목사는 퇴임 인사말을 통해 “10년 임기를 완주하고 교회 정관에 따라 무사히 퇴임하게 하심과, 건강을 허락하심과, 여러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심에 감사한다”면서 “주님의교회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할 수 있었던 것과 10년 동안 삶과 사역의 지평이 넓어진 것 역시 감사하며, 다음 사역지가 준비되어

하나님의 일을 계속하게 된 것에도 감사드리면서, 교인들의 끝없는 기도가 이를 가능하게 하였음에 감사드린다”고 소회를 밝혔다.

교인들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를 함께 외쳐서 초대 이재철 목사 이후, 정관에 따라 임기를 정상적으로 마치고 퇴임하는 첫 번째 담임목사의 그간의 수고에 감사하고, 앞날에 하나님께 하시기를 기원했다. 이날의 퇴임식은 부목사 12명의 특송으로 마무리되었다.

박원호 담임목사는 부임 후 “하나님의 나라 위해 헌신하는 알곡 공동체”를 주님의교회가 지향해야 할 비전으로 제시하고, <목적이 이끄는 40일>, <12단계 성경공부>, <예수 친구사역> 등을 통해 교인들의 신학적 성숙을 위해 노력해왔다. 재임 중 교회의 정관이 제정되었고, <교회규정집>이 발간되어 체계를 갖추었으며, <주님의교회 25년사>가 간

행되어 그간의 역사를 기록으로 남기기도 했다.

박원호 담임목사는 다음날인 19일 11시 경기도 이천에 있는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의 총장 취임식을 갖고 이 학교의 제5대 총장의 임기를 시작했다.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는 2005년 개교한 대학원 과정을 교육하는 대학교로, 박원호 담임목사는 2012년 제4대 이사장, 2016년 제6대 이사장을 역임한 바 있다.

박원호 담임목사가 퇴임함에 따라, 후임 담임목사가 청빙될 때까지는 노회에서 파견된 김성식 목사(초대교회)가 임시당회장으로 교회의 법적 대표자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설교는 부목사단에서 순서대로 담당하되, 한 달에 한 번은 외부에서 초빙하기로 했다. 후임 목사의 청빙은 아직 진행 중이며, 그간의 진행 경과에는 7월 당회에 보고될 예정이다.

함즐함울

종교개혁 이야기 6

루터의 밋모섬(바르트부르크 성)

‘돈으로도 못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가요 하나님 나라. 거둬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눈 마르틴 루터(Martin Luther, 1483-1446)의 95개조 반박문은 인간이 선한 행위나 면죄부(재물)로도 결코 구원에 이를 수 없는 것임을 천명한 귀중한 신앙의 고백이다. 그리하여 오직 ‘믿음에 의한 칭의’(justification by faith), 보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믿음을 통한 은총에 의한 칭의’(justification by

grace through faith)는 루터 사상의 핵심이 되었고, 이는 가톨릭교회의 겉으로 드러난 부패를 공격하기보다 그 내부에 잘못된 신학의 핵심을 공격한 것이다.

이에 대해 당시 교황이었던 레오10세는 1520년 칙령을 발표하여 “한 마리 산돼지가 주님의 포도원을 짓밟았다.”고 선언하였으나 루터는 이 교황의 칙령을 모두가 보는 앞에서 불태워 버렸고, 후에 교황과 불편한 관계를 만들고 싶지 않았던 신성로마제국의 황제 카를 5세에 의해 1521년 보

름스 제국의회에 소환되었다. 자신의 견해를 철회할지를 묻는 황제에게 루터는 이와 같이 대답하였다.

“나의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바 되었습니다. 나는 철회할 수 없거니와 철회하지도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양심에 불복하는 것은 옳은 것도, 안전한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며, 내가 여기에 서나이다. 나를 도우시옵소서, 아멘.”

교회와 국가, 모두로부터 적이 되어 버린 루터를 보호해주었던 사람이 있었다. 그는 독일 작센지방의 선제후(중세 독일에서 황제 선거의 자격을 가진 제후) 프리드리히(Friedrich the Wise)였다. 그는 온갖 위험으로부터 위협받던 루터를 바르트부르크로 숨겨주었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밋모섬에 유배되었던 것을 빗대어 바르트부르크를 ‘루터의 밋모



제국의회에서 루터가 심문받던 자리1



루터가 심문받던 자리2

섬’이라 이야기하고 있다. 루터는 그곳에 은둔해 있는 동안 라틴어 신약성서를 독일어로 번역하였고, 이것은 훗날 독일과 온 유럽에 종교개혁의 사상을 전파하는 기폭제가 되었다.

박주영 전도사



바르트부르크성



바르트부르크성에 있는 루터의 방

성경을 바르게 읽기 위한 더 바이블 (The Bible) 3

3.성경의 시대는 어떻게 구분 할 수 있는가?

성경은 고대 근동지역에 있었던 이야기이다. 성경은 크게 다음과 같은 시대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는 구약성경에서 먼저 읽을 수 있는 창조와 족장시대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함께 애굽에서 나오는 내용이 나온다. 그리고 사사들이 치리하던 시대와 사울 왕을 시작으로 왕조시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유배당했던 시대, 그리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포로 귀환시대 및 제2성전시대로 나눌 수 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있었던 마카비 왕조시대였던 신구약 중간기와 예수님의 시대로 이어진다.

창조시대와 족장시대

창조시대는 당연히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한 역사를 말한다. 그리고 족장시대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약속하신 내용을 중심으로 야곱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어떠한 약속을 하셨고 그것을 어떻게 이루어 갈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 내용들이다. 이 족장시대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구성되고 있

지만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역사관과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의 계약으로 형성된 공동체라는 매우 중요한 특징을 알도록 하는데 초점이 맞춰있다. 그렇기 때문에 족장시대는 족장들의 삶도 엿볼 수 있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 갖고 있는 설계도를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내용들이 등장한다. 그리고 족장시대는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도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스라엘이 외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주변나라들과 어떤 관계를 형성해야 하는지 알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출애굽과 사사시대, 왕조시대

이후 출애굽시대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에서 출발하여 가나안에 정착하기까지를 보여준다. 모세와 함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 위한 율법과 규정들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다. 즉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맺은 언약을 중심으로 서로에 대한 규정들을 나열해 주고 있다. 여기에는 초기 율법서도 등장하며 예배처소에 대한 언

급과 그에 따른 규정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 이후부터는 주로 가나안 민족 속에서 생활을 해야만 했다.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민족과 거룩한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약속을 이루어 가야만 한다. 그러한 시대적 배경과 이야기들은 사사시대를 거치면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한 전쟁을 통해서 정착해가면서 이스라엘도 지역 주변국가처럼 왕정시대를 세워간다. 하지만 왕정시대는 하나님의 계약을 중심으로 순종과 불순종의 역사로 얼룩지고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다.

바벨로 포로시대 이전과 이후

바벨론 포로시대를 거치면서 이스라엘은 다시 새로운 거룩한 민족이 행해야 할 신학적 토대를 마련한다. 뿐만 아니라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새 예루살렘을 희망하기에 이른다. 그러므로 바벨론 포로시대는 무너진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그들의 정체성을 새롭게 하는 시대라 할 수 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성경을

크게 바벨론 포로시대와 바벨론 포로 후기 시대로 구분하기도 한다. 바벨론 포로시대 이전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하여 끊임없이 각자의 길로 갔던 시대를 말하고 바벨론 포로시대 이후는 이스라엘이 새롭게 변하는 시대를 말하는 것이다.

성경의 시대는 이처럼 각각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 특징은 결국 성경 역사를 말하고 하는 것이다. 이 특징 안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 계약 범위 안에서 ‘공동체 회복’과 거룩한 제의 실천을 위한 ‘예배처소복원’이라는 중대한 사명을 발견 할 수 있다. 이것은 결국 이스라엘이 무너졌던 공동체의 정체성을 확립해 가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성경의 시대는 신학적 기반을 세워가는 중요한 구분이며 이후에 성경이 가지고 있는 핵심 주제들을 정리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다. 이은석 목사

〉 ‘더 바이블(The Bible)’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성경을 바르게 제대로 읽어, 말씀으로 진정한 변화를 이루는 삶을 살자는 취지로 마련한 코너입니다.

창립29주년특집

지난 29년을 되돌아보다

주님의교회가 창립 29주년을 맞는다.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펼치고자 남다른 헌신의 정신으로 섬겨온 날들이었다. 초대 이재철 목사, 제2대 임영수 목사, 제3대 문동학 목사, 그리고 지난주에 퇴임한 제4대 박원호 목사까지 4분의 담임목사가 목회를 이끌었고, 처음 53명이었던 교인수는 교적부상 10635명으로 늘었다. 양적 성장이 꼭 좋은 교회가 되었다는 뜻은 아닐 터, 창립 29주년을 맞아 그간의 공과를 살펴 초심을 되돌아보고자 한다.

함글함글

1988~1997

교회 본질의 회복

주님의교회는 1988년 6월 26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작은 지하세미나실에서 출발했다. 당시 이재철 전도사와 성도 53명이 모여 소박한 창립 예배를 올린 주님의교회의 출발은 남달랐다. 한국 사회가 오랜 정치적 질곡에서 벗어나고, 경제가 본격적인 성장곡선을 그리기 시작함에 따라, 많은 교회가 교회의 성장과 부흥을 목회의 목표로 여기던 시절에, 주님의교회는 ‘교회 본질의 회복’에 초점을 두고 세워졌다.

초창기 주님의교회의 기본 정신은 제1대 이재철 담임목사의 목회철학과 당시 교회 공동체의 논의에 큰 기반을 두고 있다. 창립 전야에 있었던 기도모임에서, 공동체 전원이 교회 예산의 50% 이상을 이웃 사랑의 실천을 위해 선교와 구제에 사용하기로 서원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마태 16:18)는 말씀에 따라, 교회의 주인은 오직 주님이라는 의미에서 교회의 이름을 ‘주님의교회’라고 지었으며, 교회 공동체의 중심은 말씀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교회의 주인이 주님이므로, 특정한 개인이 교회의 주인 역할을 하지 않도록 모든 당회원을 임기제로 한원칙도 세워졌다. 1991년 1월에는 헌금은 예물을 주님께 올리는 것이므로, 예배 중 헌금하지 않고, 헌금봉투에 헌금자를 기재하지하기로 결정했다. 이 사이에 정신학원과 의 아름다운 관계가 형성되었다. 10년이 되던 해, 이재철 목사는 자신이 세운 원칙에 따라 교회를 떠났다.



1988년 첫 예배를 드린 YMCA 건물



1989년 제 1회 주님의교회 전교인 수련회



1988년 창립예배 중 봉헌기도



1996년 함글함글 창간호

1998~2007

내적 성장의 시기

1998년 11월 정신학원의 대강당인 김마리아홀이 완공됨에 따라 정신학원에 기증하고, 입당예배를 올렸다.

2002년 12월에는 예배 및 교육 공간 확보를 위한 중강당과 생활교육관이 완공되어 감사예배를 올렸다. 강당의 증축부분도 역시 정신학원에 기증되었다. 이 새 터전에서 오랜 고사 끝에 임기를 시작한 제2대 임영수 담임목사는 ‘하나님의 창조 행위 가운데 교회 공동체가 있음’을 전제로, 거룩하고 보편적이며 친교와 섬김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건강한 영성을 회복’해야 함을 강조했다. 영성에 대한 오랜 서원을 실현하기 위해 2002년 8월 임영수 담임목사가 70세 정년까지로 보장되었던 임기 중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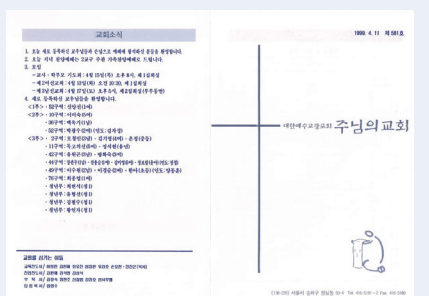
1998년 이재철 목사 이임



1998년 대강당 준공예배 초청장

사임하면서 담임목사가 공석이 되었다.

후임 제3대 문동학 담임목사는 2003년부터 목회를 시작했다. ‘크리스천의 대안의 공동체 건설’과 ‘기쁨으로 봉사하고 헌신하는 의로움의 사역’을 가치로 삼고, 사회와 불신자를 섬기고 세상을 치유하는 교회를 지향했다. 문동학 목사와 교회 공동체는 오랜 논의 끝에 정신학원 안에 있는 주님의교회의 특성과 역사를 바탕으로 “교회 건물을 소유하지 않고 교회 예산의 50%를 세상을 위해 쓰면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고 청소년 사역에 집중하며 주님의교회들을 번식하는 교회”를 비전으로 택했다.



1999년 주님의교회 주보

2005년 12월 11일, 첫 번째 번식교회로, 경기도 남양주시 도농동의 동화중고등학교에서 이인호 목사가 담임하는 길가에교회가 창립되었다. 그러나 문동학 목사 역시 개인적 사정으로 2006년 9월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사임했다. 2007년, 6월 미국에서 이민교회를 목회하던 박원호 목사가 제4대 담임목사로 부임했다.

2008~2017

안정과 사역 확장

2007년부터 섬기고 있는 제4대 박원호 담임목사는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알곡 공동체’를 비전으로 채택했다. ‘기도, 생명, 공동체, 의로움, 나눔과 섬김, 기쁨, 최선’을 정신으로

> 4면에 계속

교회 소식

박원호 목사,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총장 취임

- 하나님 나라 겨자씨를 뿌리는 농부의 자세로



6월 19일 오전 11시 경기도 이천에서 자리한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에서 제 5대 총장으로 주님의교회 전 담임목사인 박원호 박사가 추대되는 취임식이 거행되었다. 200석 규모의 대학 채플에서 진행된 취임식에는 좌석을 가득 채우고 서서 자리를 지킨 것은 물론, 빈 강의실에서 화면으로 취임식을 지켜봐야 할 만큼 많은 사람들이 참석하여 축하의 자리를 가졌다. 학교 관계자들과 교계 안팎의 축하객들이 함께 하였고, 주님의교회 성도들도 교회에서 제공한 차량과 개인별 차량으로 많은 수가 참석

하였다.

취임 예배에는 전 장신대 총장인 서정운 박사가 신학을 실천하는 삶을 주제로 설교하였고 통합 총회장인 이성희 목사와 조병돈 이천 시장의 축사가 뒤따랐다. 주님의교회 미시오데이와 살롬여성합창단의 축하로 더욱 풍성한 축하의 자리가 되었다. 박원호 목사는 취임사에서 농부가 들판에 나가 뿌린 겨자씨의 예를 들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농부의 심정으로 역할을 다하겠노라 하였다.

이 날 취임식에 참석한 주님의교회 성도들은 바로 전 날인 18일에 10년 동안 주님의교회를 이끌며 헌신하고 아름다운 퇴임을 한 박원호 전임 담임목사가 새로운 임지에서 새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하였다.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는 올해 개교 10년을 바라보는 학교로 한국교회의 연합과 일치를 실천하여 개신교 내 다양한 교단의 목회자들과 실천신학자들로 구성된 공동체로 석사와 박사과정, 석박사 통합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함글함글



교단 소식

통합과 합동, 함께 걸어가기

주님의교회가 속해있는 교단의 기관지인 기독교보에 따르면 지난 6월 15일 연동교회에서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와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총회 양대교단이 함께 '장로교심포지엄'을 열었다.

종교개혁 500주년의 해에, 분열된지 58년 만에 처음으로 양 교단의 노회장들까지 참석하여 한 자리에 모이는 심포지움을 열었으며, 1959년 분열총회 이후 각기 구분해 속회를 열었던 역사의 현장에 양교단 인사들이 모여 더욱 의미가 깊다는 평가다.

하나 되지 못하고 분열된 죄를 회개하고 더 큰 부흥을 위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며 국가와 민족 앞에 책임을 다하겠다는 기도가 한 목소리로 울렸다고 한다. 종교개혁 500주년의 해에 한국교회의 나갈 길을 주제로 열린 이날 행사는 심포지엄과 논찬, 예장 통합·합동 공동기도문을 낭독한 후에 마쳤다고 한다. 이 행사를 계기로 앞으로 양교단 간에 지속적인 교류가 이어지길 기대하고, 미래 세대에게 더 좋은 교회로 자리매김하길 바래본다. 이번 1차 심포지엄에 이어 2차는 오는 7월 19일 승동교회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함글함글

> 3면에서
여러 사역이 진행되었다.

2008년 3월에는 12단계 성경공부가 시작되었다. 전교인을 대상으로 시작한 이 성경공부는 2012년 1월로 11단계까지 완료하고, 12단계는 성지순례로 기획되어, 4월 17일부터 5월 4일까지 3차에 걸친 성지순례로 종료되었다. 2009년 6월에는 창립 21주년을 맞아 새 엠블럼을 제작하여 사용하기 시작했다. 2010년 9월, 예수친구사역을 시작했다. 뿌리기 수로 시작한 이 깊이 있는 제자 사역은 2011년 2월 1기, 2012년 2기로 이어졌다. 2011년 6월에는 대외복지 사업을 진행하는 사단법인 '섬김과 나눔'을 설립했고, 2011년 8월에는 두 번째 번식교회로, 이호 목사가 담임하는 J주님의교회가 창립예배를 올렸다. 2012년 4월에는 부활절을

맞아 새로운 형식의 예배드라마를 드렸다. 신앙을 갖고 있지 않은 분들에게 부활절의 의미를 알리고, 쉽게 기독교의 진리와 은혜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는 평을 받았다. 2013년 말에는 다목적교육관을 세워 정신학원에 기증했고, 2014년에는 <주님의교회 25년사>가 간행되어 그간의 역사를 기록으로 남겼다. 처음 53명으로 시작했던 주님의교회는 지난 29년간 폭발적으로 성장했다. 2017년 6월 현재 교적부상 교인은 10635명이며, 11개 교구의 315 겨자씨로 편성되어 있다. 전임교역자 18명, 비전임교역자 26명, 장로 28명, 직원 18명이 교회를 섬기고 있다.

함글함글



2008년 전교인 수련회 성막체험



2012년 부활절 예배 드라마



2013년 정신학원 다목적 교육관 착공식



2011년 J주님의교회 창립예배



2012년 노방전도



2015년 전교인 수련회

선교지 소식

케냐 기독교교육선교센터 완공



케냐 기독교교육선교센터 감사예배 중에

케냐는 오랫동안 준비해온 기독교 교육선교센터를 완공하고 난 후 5월30일 주님의교회를 초청하고 함께 감사예배를 드렸다. 주님의교회는 박원호(전)담임목사와 함께 부목사들이 동행 참석하여 케냐신학교 총장님과 여러 교수님들을 만나 그동안의 수고와 노력에 감사하며 주 안에서 기쁨의 인사를 나누었다. 케냐는 아프리카 지역에서 가장 활발히 선교가 이루어지는

나라이며 최근의 경제성장과 더불어 지리적 위치를 기반으로 선교적으로 중심을 잡고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나라이다. 현재 이곳에 최초의 선교센터가 세워지면서 케냐는 물론 아프리카 지역에 하나님 나라 중심의 교육선교를 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교두보가 확립되었음을 참석한 모두가 기쁨의 감사인사를 나누었다. 이 행사에 참석했을 때 많은 케냐 총회 지도자들도 참

석했을 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의 중요 인사들이 함께 참여함으로 인해서 이 선교사역이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 것인지에 대해서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 여러 총회 지도자들과 지역인사들의 축하와 격려를 통해서 참석한 모두가 앞으로 이 선교센터를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것을 기대하도록 했다. 주님의교회 협력선교사인 이원재, 진은현 선교사부부는 이 행사를 준비하며 케냐 총회와 주님의교회를 연결해주는 중요한 사역을 감당했으며 케냐총회는 주님의교회와 성도님들에게 한없는 기도에 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후 케냐총회는 기독교교육선교센터를 중심으로 케냐의 기독교가 어떠한 역할을 하며 어떤 신학적 방향성을 가져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진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함께 가졌다. 케냐총회는 다음세대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이것을 통해 다음세대의

강조는 어느 나라에서나 매우 중요한 과제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고, 앞으로 기독교가 반듯이 해결해 가야 할 중요과제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케냐는 어느 나라보다 기독교가 상당히 활발한 움직임을 하고 있고 더욱 높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분명한 성장을 거듭해 갈 것이라 보인다. 그래서 그 활발한 움직임에 다음세대를 향한 그 첫 발걸음을 시작하고자 하는 케냐에 하나님께 대한 기도와 응원을 아낌없이 보냈으면 한다. **이은석 목사**



케냐 기독교교육선교센터 전경

선교 이야기 5

2017년 세계 기독교 및 종교 현황

종교 개혁으로 탄생한 개신교의 역사가 500년이 되는 2017년, 개신교는 전 세계적으로 234개 국가에서 5억6천만 명이 따르는 세계적인 종교가 되었다. 종교개혁 당시인 16세기 전 세계 개신교인의 99% 이상이 개신교가 태동했던 유럽에 거주하였지만, 오늘날(2017년)에는 16%만이 유럽에 있고, 전 세계 개신교인의 다수(59%)는 아프리카(41%)와 아시아(18%)에 살고 있다. 또한 2050년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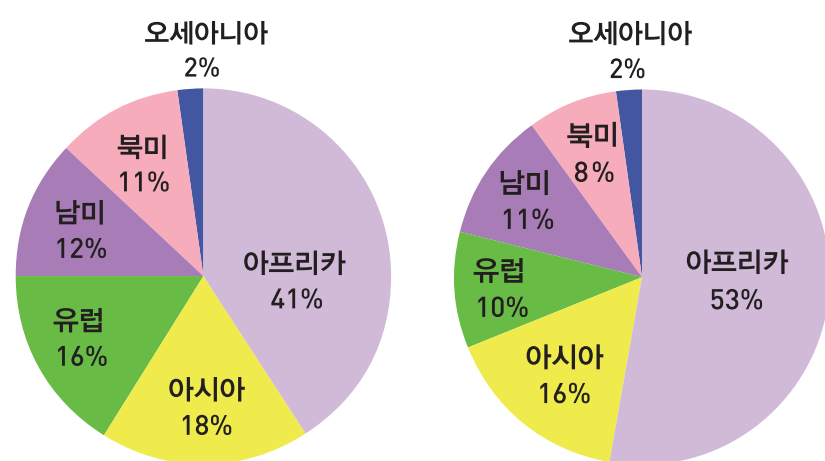
는 이러한 격차가 더 벌어져 전 세계 개신교인의 70%가 아프리카(53%)와 아시아(17%) 대륙에 거주하고, 유럽(10%)과 북미(8%) 대륙은 개신교의 소수 지역으로 물러날 전망이다.

종교인, 기독교인, 이슬람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점차 증가하고 비종교인, 힌두인, 불교인의 비율은 감소하고 있으며, 이들 중 가장 빠르게 증가하는 종교는 이슬람(1.93%)이다. 그리고 전체 개신교 인구 중 사하라 사

막 남쪽 지역에 있는 아프리카의 개신교 기독교인들의 인구가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 한 편, 유럽, 북미, 남미, 아시아의 개신교 인구는 줄어든 것이고 2050년에는 아프리카 개신교 인구가 50% 이상을 차지하게 될 것임을 위의 두 도표는 보여주고 있다. 최근 이슬람의 가파른 상승에 비해 개신교 세계 해외 선교사는 현재 약 43만 명으로 연 증가율은 0.54%에 지나지 않아 증가율이 현저히 줄어 들

고 있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 제야 끝이 오리라”(마24:14)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실현시키기에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멀고 험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2017년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주님이 주신 지상명령인 선교에 대한 비전을 새롭게 하고자 해외선교분과의 제공으로 12회에 걸쳐 선교 이야기를 연재합니다.



대륙별 개신교인 분포, 통계 출처 : IBMR

세계 인구 및 종교 인구의 변화 추이(2017년 현재)

분류	인구(만 명)	연증가율(%)	비율(%)	2025년 비율(%)
총 인구	75억 1528	1.21	100	100
기독교	24억 7956	1.31	32.99	33.56
이슬람	17억 8444	1.93	23.74	25.11
힌두교	10억 3172	1.34	13.73	13.63
불교	5억 2718	0.93	7.01	6.96
비종교인	8억 3389	0.31	11.10	10.32
종교인	66억 8139	1.33	88.90	89.68

기독교 인구는 천주교, 개신교, 성공회, 독립교회 등을 합한 수치이며 성공회 포함 개신교인의 인구는 5억6천만명으로 기독교 인구 중 약 23%이며 천주교 인구는 12억3천만 명으로 약 50%를 차지한다 (출처: International Bulletin of Mission Research 2017년1월호, 한국선교연구원(krim.org) '파발마2.0' 2017년3월호)

예천사

예수친구사역 세미나 및 5기 수료식



지난 6월 9일과 10일, 주님의교회에서 예수친구사역 전체 세미나가 진행되었다. 처음 1기 사역을 시작한 이래 7년간 예수친구사역을 진두지휘했던 박원호 목사의 말씀을 통해 다시금 제자로서의 부르심과 사명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동안 예수친구사역을 수료한 많은 성도들이 다 함께 모여 찬양과 말씀과 기도로 새롭게 마음을 여미는 귀한 자리였다.

특히 이번 수료의 영광을 함께 나누는 예수친구사역 5기 수료자들은 사명자대회 이후 1년 반의 기간 동안 거의 매주 함께 모여 공동체 훈련과 리더 훈련을 진행했었다. 결코 쉽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최선을 다해 모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최고의 시간이었노라.'고 고백하던 5기 수료자 한 명 한 명에게 이 지면을 빌어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 **박주영** 전도사

교단 소식

통합과 합동, 함께



지난 5월 20일(토)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초등부실에서 남선교회 친선 모임이 진행되었다. 예배를 드린 후에 2부 행사로 4명의 장로가 남선교회의 희망 등 특강을 하였고, 3부에서는 참석자들이 조별로 나누어 분임토론회를 가졌다. 토론회에서는 교회발전을 위한 제안 사항을 나누었다. 4부에서는 전문 마술사를 초청하여 마술쇼를 보고, 이어진 퀴즈대회에서는 각종 넌센스 퀴즈가

쏟아져 참석자들 모두 흥겨운 시간을 보냈다. 각선교회별 회장단이 마련한 상품들이 푸짐하여 참석한 회원들이 한아름씩 안고 돌아갔다. 남선교회 연합회장인 양동훈 장로는 후반기에 남선교회 활성화를 위한 빅뱅 운동을 계획하고 있다 하며, 남선교회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교회 주축으로 자리매김을 하여 놀라운 사역을 담당할 줄 굳게 믿기를 바란다고 했다. **노대홍** 안수집사

스포츠사역

유소년축구 종강

유소년 축구 상반기 종강이 6월 18일에 마쳤다. 다가올 무더위를 피해 방학이 시작되었다.

총 27회 시행되며 상반기에 15회를 마쳤다. 방학을 맞은 아이들은 축구를 배우며 함께한 뛰어다니며 행복을 느끼고 양보심도 배우며 정을 느꼈다고 한다. 하반기 일정은 8월 27일부터 11월 19일까지 12회 진행을 하며 유소년축구를 지도하는 강사들은 유소년축구 시간에는 차량을 다른 곳으로 이동하여 불편을 줄여 주기를 간곡히 바란다고 했다.

김경숙 집사



스포츠사역

주님의교회 유소년축구 지도를 하면서
-유소년축구강사들의 한마디

2017년 3월 5일 토요일, 주님의교회 유아축구의 새 학기가 시작되었다. 어느덧 연차로 3년째 유아반의 강습을 진행해서 익숙하지만, 늘 새 학기의 시작은 설렘으로 가득했다. 내가 가르쳤던 학생들이 성장하는 것을 보니 감회가 새롭기도 하고, 또 어떤 새로운 학생들을 내가 가르치게 될까 하는 기대감도 들었다. 사실 5-6세 유아반 아이들을 다루는 것이 처음부터 수월한 것은 아니었다. 아직 부모님의 손을 많이 타는 나이인데 개개인의 성격이 많이 묻어나고 통제하기 힘든 시기라 강사로서 수업을 진행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었다. 학기가 시작되고 시간이 지날수록 아이들이 나에게 익숙해지고 나도 아이들에게 익숙해지면서 아이들이 나의 말을 잘 따라주었고 강습을 통해 오는 보람이 점점 커졌다. 가장 큰 기쁨은 수업 전 항상 아이들

이 내게 달려와 안기는 것이었다. 내게 선생님! 하고 외치며 달려와 안기면 아이들과의 유대감에 큰 기쁨을 느낄 수 있었다. **안준규** 강사

작년 2학기와 이번 학기가 끝나는 소감은 매우 다르다. 작년에는 보조담임으로 있었으면서 아이들의 이름도 잘 외우지 못했고 아이들에게 큰 애착이 가지 않았던 반면, 이번 학기엔 시작부터 끝까지 단 하루도 빠짐없이 아이들과 함께 하면서 많은 걸 느끼고 배울 수 있었다. 장난기와 웃음 많던 아이들과 함께 3개월을 보내고 나니 나 또한 그 안에서 많이 순수해지고 행복했다. 한명 한명 모두가 예쁘고 사랑스러웠다. 마지막 날 아이들에게 "다음 학기에도 선생님과 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물었을 때 모두가 큰소리로 "네! 선생님이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라고 대답

해주었을 때 너무나 큰 보람과 뿌듯함을 느꼈다. 하루 빨리 아이들을 다시 만나고 싶다. **강성현** 강사

주님의 교회 아이들을 만난 지 벌써 4년째가 되었고, 처음 2학년을 지도했는데 그 아이들이 지금은 5학년이 된 모습을 보면서 시간이 참 빠르게 흘러간다는 것을 느꼈다. 조그맣던 아이가 어느새 키가 훌쩍 커져 성장해 가는 모습을 보는 것이 참 즐거운 일이다. 주님 안에서 아이들이 밝고 활발하게 성장하는 것은 물론, 다치지 않고 즐겁게 운동할 수 있도록 강사님들이 앞으로도 노력 많이 해야겠다. 우리 아이들 모두 행복하게 축구하기를 응원 한다. **이정연** 강사

목회칼럼

자연의 역습

물이 부족해, 농부들은 농사를 지을 수 없다고 아우성이다. 그들의 마음은 물이 없어 매말라 갈라져 버린 저수지 마냥 짝짝 갈라져 간다. 미세 먼지로 인해, 우리는 삶의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아니, 이제는 불편을 넘어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 이 미세 먼지의 주범으로 정부는 석탄을 연료로 하는 화력발전소와 노후화된 경유차를 지목했다. 그 대책으로 30년 이상 된 노후 석탄 화력발전소의 일시 가동 중단을 명했고, 공정을 10% 이하인 석탄 발전소 설립을 유보했다. 또한 2030년까지 탈원전 시대를 열기 위한 노력도

기울이고 있으며, 며칠 전에는 고리 1호기를 영구히 폐쇄하기로 결정하기도 했다.

이 와중에, 도널드 트럼프는 파리기

의 이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입장에서 그 협정을 일방적으로 취소해 버린 것이다. 학자들은 지구의 평균 기온이 0.5도 높아질 때마다 지구상

가?”라는 질문에 “창조질서의 보존을 위해 함께 일하는 종교만이 종교라는 명칭을 달고 다닐 수 있다”는 말을 하기도 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은 인간의 탐욕스러운 삶의 방식으로 인해 신음하고 있음을, 우리는 직시해야 한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자연을 무차별로 파괴하게 되면, 자연의 역습은 시작이 되는 것이다. 우리는 지금 그 무서운 보복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최방은 목사

“인간의 탐욕으로 신음하고 있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후변화협정을 공식 탈퇴해 버렸다. 이 협정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단계적으로 감축하자는 취지에서, 시리아와 니카라과를 제외한 나라들이 참여했다. 그런데 세계에서 가장 에너지 소비를 많이 하는 미국이 자국

에 살고 있는 생물종 20% 정도가 멸종할 것이라 경고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의 이런 탐욕적인 이기적 발상도 있지만, 반면에 달라이 라마는 한 텔레비전 방송사와의 인터뷰에서 "오늘의 종교는 무엇인

군선교

군선교지에서 보내온 감사의 편지

충성! 22사단 53연대 군종목사 류호준입니다. 먼저 저희 사단을 방문하시고, 신교대 훈련병 세례식을 후원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교회 성도님들의 후원과 헌신으로 장병들이 큰 위로를 받을 수 있었고, 무엇보다 인생의 중요한 시기에 전능하

신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복된 세례식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저희 22사단 군인교회가 세례 받은 장병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보고 양육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교회 성도님들도 지속적인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저희 22사단은 최북단에 위치하여 경계작전을 수행하고 있는 부대로 전군 중 유일하게 내륙과 해안에서 동시에 담당하고 있는 부대입니다. 열악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불철주야 임무수행하고 있는 장병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기독교장병들에게는 강인한 믿음을, 비기독교장병들에게는 믿음을 갖게 되는 은혜가 있도록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주님의교회 성도님들의 헌신과 후원에 감사드리며, 주님의 은총과 평안이 주님의교회에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류호준 군종목사



정신학원에 깃든 한국 기독교의 역사 43

해방 후 복교(1)



1944년 학교 이사들

1945년 3월 19일, 학교를 안국정 경성휘문학교로 교사(校舍)를 옮기고 당국에 고등여학교를 신청하여, ‘경성풍문고등여학교’로 되면서

정신여학교는 폐교되었다. 우리나라 장로회 최초의 여학교로서 기독교 교육을 금지하려는 일제에 저항해 항거하다가 맞은 결과였다.

종로구 연지동의 교사(校舍)는 일본인 학무과장의 지시대로 영등포에 있던 성남중학교가 교사를 일본군대에 헌납하고 성남중학교가 정신여학교로 들어왔다.

8월 15일 해방이 되었다. 정신여학교와 연세대학교 설립자로 있던 언더우드가 10월 26일 한국에 입국했다. 전후 선교사 최초의 입국이였다. 그는 소령급 대우를 받는 민간인으로 미북장로회 선교사 자격을 유지하고 있었다.1 그러나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전후 피해복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머물 곳이 없었으므로 입국하는 것이 어려웠다.

12월, 9월 25일 미군정은 군정법

령 제2호를 발표해서 일제가 몰수한 한국 내 미국의 재산에 대해 적산(敵産) 동결조치를 취했다.2 그리고 12월, 군정법령 제33호를 발표해서 적산이었던 일본인들의 재산을 군정이 관할하게 하였다. 미군정측은 선교부 재산은 미군정이 ‘관리’하고 있지만 ‘법적 소유권’은 선교부에 있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희천 정신여교 교장

(1)안종철, 『미국선교사와 한미관계』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10) 252. 2) “法領第二號—財産移轉禁止,” 『美軍政法令總覽』 (서울: 韓國法制研究會, 1971), 121, 122)

아기나들이



강다빈 아기

2016년 11월 17일생

1. 주님 안에서 선하고 겸손하고 모두에게 사랑받는 자녀로 자라나게 해주세요
2.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자라게 해주세요
3. 늘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앙생활 온전히 잘 하는 아이가 되게 해주세요

아빠 강창구 / 엄마 임서정, 2017년 6월 11일 3부 예배



채이안 아기

2017년 2월 23일생

1. 하나님과 사람들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라나게 하시고, 받은 사랑을 베풀고 나눌 줄 아는 사랑 부자가 되기를
2. 일평생 영육간에 강건함을 허락하셔서 사바위처럼 단단하고 호수처럼 평화로운 삶을 누리길
3. 지혜와 총명이 빛나는 아름다운 인재로 자라나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길

아빠 채성현 / 엄마 김하림, 2017년 6월 11일 3부 예배

사역팀 소식

상례위원회 야외수련회

상례위원회에서는 6월 3일(토) 양평 두메향기로 야외수련회를 다녀왔다. 맑은 하늘과 꽃 속에서 쉼과 위로가 있는 야외수련회에 참석한 상례팀 한 분한분의 모습에서 즐거워하는 모습은 계곡에 피어있는 꽃과 같았다. 검정 상례복 대신 여러 색깔의 복장 속에서 함께한 모습에서 또 다른 공동체임을 서로 느꼈다. 상례위원회는 중앙 상례부장 밑에 교구별 상례팀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회주관 발인에 배시 참여하는 조가대 '하임찬양대'로 구성되어 있다.

함글함글



수련회 안내

2017년 주님의숲 교육목회원
여름성경학교 및 수련회 일정안내

부서	주제	일시	장소
하늘씨앗 영아부	예수님 따라 홀리! 사랑하며 HOLY!	7/9(주일)	교회
씩트네 유아부	예수님 따라 홀리! 사랑하며 HOLY!	7/22(토)-7/23(주일)	교회
담쟁이 유치부	예수님 따라 홀리! 사랑하며 HOLY!	7/22(토)-7/23(주일)	교회
포도나무 유년부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	7/28(금)-7/29(토)	교회
햇살뜨락 초등부	나의 사랑하는 책, The Book (딤후 3:15)	7/28(금)-7/30(주일)	한터 캠프 (용인)
아름드리 소년부	영을 두 배나 더 지니게 하소서 (왕하 2:9)	7/28(금)-7/30(주일)	동서울 레스피아(원주)
팝콘트리 중등부	거룩한 예배자	7/23(주일)-25(화)	교회
비전트리 고등부	움씨를 뿌리다	7/23(주일)-26(수)	충북 영동군 매곡면

사역팀 소식

22사단 훈련병 진중 세례식

6월 10일 22사단 훈련병 진중 세례식을 동해군인교회에서 90여명에게 세례를 주었다. 2017년 전반기 마지막 세례식으로 훈련을 마치고 자대배치로 군대 생활을 시작할 훈련병들 마음에 주님의 아들로 주님의 사랑을 전달 해준 귀한 시간이었다.

함글함글

7월 주님의교회
T.E.D 테드 특강

최근들어 청소년문제가 날로 심각하며 청소년이 교회를 떠나가고 있는 위급한 지경에 이르러 교사와 학부모들에게 긴급상담의 기술이 필요한바 이번 강좌를 마련하였습니다. 참석은 1층 로비에서 예약을 받습니다.

일시장소 : 7월2일 오후1시 5층 제1실

제 목 : 청소년 소통기술(청소년상담)

강 사 : 김명식상담학교수(전주대, 주님의교회집사)

문 의 : 010-2694-8320(운영총무)

작은 문제라도 전화주세요.
힘을 얻고 위로를 받습니다.
상담 내용은 비밀로 됩니다.

02) 416-5183

오전 9:00~12:00 / 오후 1:00~5:00

교회와 신앙에 대해 고민이 있으시나요? 자격을 갖춘 상담사가 귀 기울여 듣고, 함께 기도해 드립니다. ▶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상담이 진행됩니다.

신앙문제 / 대인관계 / 부부갈등 / 자녀문제 / 시댁문제 / 기타문제

주님의교회
전화상담